

적대와 환대를 넘어서는 무관심의 포용, 쿼다*

김준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 들어서는 글
2. 적대와 환대, 타자에 대한 즉각적·적극적 관심
3. 무관심, 관심의 유예
4. 드르쌍 내부러사 쿼어지는 쿼다의 실천
5. 나가는 글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예멘 난민에 대한 다문화 한국 사회의 적대와 환대를 타인에 대한 인식과 포용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제주의 쿼다문화에서 적대와 환대의 대립을 넘어 포용의 가능성을 짚어볼 것이다. 쿼다문화는 포용의 전제로 무관심을 수행한다. 이 글은 적대와 환대를 넘어 무관심이라는 배려로써 타자 인식에 선행하는 판단중지를 호소한다.

적대와 환대는 타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의 표명이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했던 난민과의 만남에서 적대와 환대를 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 3의 반응이 존재한다. 무관심이다. 적대와 환대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의 표명이지만 무관심은 관심의 유예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 2020)에 따르면 2018년 6월 난민수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에서 22%가 잘 모르므로 입장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3627).

표명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제주도민의 경우, 난민법에 맡겨두면 될일 39.6%, 잘 모르므로 입장 표명 불가 21.8%였다(전영준·김준표 2021). 이 응답들은 관심의 유예, 무관심을 나타낸다.

제주 사람들은 낯선 타자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드르쌍 내불라는 제주의 콧다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콧다문화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스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기다려야 대등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제주의 생활양식이다.

|주제에 콧다, 난민, 다문화, 적대, 환대, 무관심

1. 들어서는 글

2018년의 집단적 타자, 예멘 난민의 제주 입도는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적대와 환대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21년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해서는 적대 감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예멘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 차이는 타자 인식에 대한 주체의 선이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멘 난민이 말레이시아로부터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집단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였을 때는 급작스러운 타자의 등장이었던 탓에 이들에 대한 선이해는 예멘 출신, 말레이시아 출발, 무슬림 종교 정도에 불과하였다. 대상에 대한 주체의 무지 상태에서 맞닥뜨린 예멘 난민 집단에 대한 이해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삶의 뿌리가 뽑힌 채 죽음의 공포를 피해 삶을 이어나가보겠다는 살기 위해 들어온 이들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점을 주체들도 알고 있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주체의 타자 인식은 오해(가짜 뉴스)를 생산하였다. 이들의 정체성을 가짜난민으로 규정하고 무슬림 종교 전파자로 표상한 것이다. 적대적 반응은 그 대립쌍인 환대적 반응을 오히려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인천공항에 착륙하였을 때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 전부터 이들에 대한 설명이 시도되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하였던 이들이라는 점에서 타자가 아니라 우리편이라는 연대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우리편을 챙긴다는 의미에서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라는 별칭이 주어졌다. 울산, 인천 등지에 정착한 이들에게는 난민 지위와 같은 장기체류자격이 보장되었다. 지역의 일부 학부모들이 우려와 염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포용하는 분위기였으며 적대적 입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예멘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상반된 반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예멘 난민에 대한 오해와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편이라는 인식과 아직 우리편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인식이 타자에 대한 환대와 적대를 결정지었던 것일까? 이러한 고민이 이 글의 시작점이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적대적 반응과 환대적 반응 중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¹⁾ 적대의 선택이든 환대의 선택이든 나름의 근거가 있을 것이고 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북한이탈주민이 33,834여명이고,²⁾ 2021년말 기준으로 결혼이민자가 168,611명, 체류외국인이 1,956,781명이며,³⁾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총 71,042건이다.⁴⁾ 제주도 인구의 세 배가 넘는, 전라남도의 인구를

1) 이성욱(2018)은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여론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원리로 비판하였고, 신용식(2022)은 고향을 상실한 난민의 상태를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해석학을 통해 재조명하며 데리다의 절대적 환대보다 하버마스의 상대적 관용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의 논문들에서도 적대 반응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학술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적대 반응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틀로 특정 이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되고 있다.

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최근현황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st/>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3)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vw_cd=MT_ZTITLE&list_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웃도는 대략 220만명 이상이 다문화 인구인 셈이다. 2020년 출생아의 6%가 다문화가정 출생아라는⁵⁾ 점까지 감안한다면, 한국사회는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가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를 탈신화화하면서 사실은 한국사회가 역사적으로 다문화사회였음을 주장하면서 다문화(한국)사회의 난민 포용을 촉구하려는 것도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⁶⁾

이 글의 목적은 예멘 난민에 대한 (다문화)한국사회의 적대와 환대를 타자 인식과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적대와 환대라는 대립각을 넘어서는 포용의 가능성을 제주의 콤다문화에서 짚어보려는 것이다. 제주의 콤다문화는 포용의 전단계로 무관심을 수행한다.⁷⁾ 이 글은 적대와 환대를 넘어서는 무관심의 배려, 타자 인식 이전의 판단중지를 호소하려고 한다. 무관심은 관심 이전의 상태이며, 판단중지는 적대 또는 환대라는 정치적 행위에 선행하는 것이다.

2. 적대와 환대, 타자에 대한 즉각적·적극적 관심

학술데이터베이스 디비피아(DBpia)의 난민 키워드 검색결과에 따르면, 1979년 이후 난민 관련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1975년

-
- 4) 법무부,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 https://www.moj.go.kr/moj/2417/sub_view.do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 5)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2년 11월 3일 12시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21620
 - 6)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와 다문화 전통에 대한 글은 전영준(2009; 2021a; 2021b), 김준표(2021a; 2021b)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7) 제주어 '콤다'는 '폼다'를 의미한다. '콤다'의 대립어는 '짜다(내치다)'이며, '짜다'의 일반적인 용례는 '드르쌍 내볼라'이다. '저만큼 내쳐두고 가만 내버려두라'는 뜻이다. 제주의 콤다문화는 상대를 폼어 안는 콤다 이전에 상대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내버려두는 무관심의 방임을 전제로 하는 무관심의 배려를 통한 포용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준표(2020)에서 살펴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 온 난민들을 위한 난민보호소가 부산에 설치되면서 한국전쟁의 피난민 경험으로 세계 난민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상학(1979)은 한국으로 들어온 난민들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하고 주택, 교육, 취업 문제를 해결과제로 제시하면서 국민적인 이해를 호소한 바 있다. 1979년 이후 유엔난민기구가 6월 20일을 세계난민의 날로 선언한 2000년까지 53건의 난민 관련 학술자료가 검색되었고, 2001년부터 난민법이 제정된 2011년까지 300건, 난민법 제정(2011년 12월 29일) 이후인 201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1,181건의 학술연구자료가 검색되었다.⁸⁾ 디비피아에서 난민을 키워드로 1,534건의 학술자료가 검색되지만, 이 중 677건이 2018년 이후의 논문들이다. 예멘 난민 제주 입도 이후 4년 동안 전체기간 44년 학술자료의 44%에 해당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이다. 예멘 난민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난민신청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 해 300명 이상,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000여명, 2013년도 1,574명, 2014년도 2,896명, 2015년도 5,711명, 2016년도 7,542명, 2017년도 9,94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⁹⁾ 2018년도 난민신청자는 예멘 난민을 포함하여 16,173명이다. 늘 있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멘 난민들의 난민신청에 직면하여 한국사회는 난민 수용 반대와 찬성의 담론 충돌을 일으켰다. 집단적 출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집단적 출현이었기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적대와 환대라는 반응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의 두 방향이며,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난민에 대한 적대 반응은 낮선 타자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에 기반한다. 예멘 난민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통해서 우리는 낮선 것, 다른 것에 대한 혐오가 인류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공고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8) 난민을 키워드로 검색된 학술자료에는 사실상 난민을 주제로 다루지 않았던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한 통계수치로 인정될 수는 없다. 예컨대 1979년에서 2000년까지의 53건 중 3건이 난민을 주제로 한 논문이 아니었다.

9) 법무부,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 https://www.moj.go.kr/moj/2417/sub_view.do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김치완 2020: 43). 서영표(2020)는 혐오의 사회적 조건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시장맹신주의에 있다고 지적한다. 개별주체의 취약함과 불안정성은 타자와의 연대, 연대를 통한 서로 간의 인정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맹신주의 사회가 연대와 상호인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기존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이렇게 봉쇄된 연대와 상호인정이 종교적 광신과 극단적인 정치적 열망을 통해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바우만 2016: 34; 서영표 2020: 145에서 재인용). 이것이 바로 극우적 포퓰리즘과 혐오의 정치가 움터 나올 수 있는 토양이다(서영표 2020: 145).

난민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난민 유입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다(전영준·김준표 2021: 146).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중상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신자유주의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상태라는 점에서, 연대와 상호인정이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멘 난민에 대한 적대 반응의 중심에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김준표 2020: 209)는 점도 마찬가지로 왜곡된 형태의 연대로 해석할 수 있다. 난민 반대 목소리의 논쟁에서 핵심은 국민과 난민의 대립이었지만 특히,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크게 작용하면서 난민을 낯선 타자로서 단지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점에서(김진선 2020: 25) 그러하다.

난민에 대한 환대 반응이 보편규범으로서의 인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이 근대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국가 경계 내부의 국민과 법률적 인정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국가 경계 외부로부터 들어온 난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윌글: 26). 법률적 인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심사는 선택과 배제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 난민은 오히려 국민국가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범주상의 혁신을 위한 터를 닦아주는 한계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조르조 아감벤 2008: 259-260; 김진선 2020: 27에서 재인용).

경계를 넘나드는 상상력, 경계를 넘나들었던 타자 경험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는 주체의 성찰이 난민에 대한 환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난민으로서의 자신의 자리가 바로 경계의 틈새이기에 그 틈새를 한껏 활용하고 경계를 그어놓는 금을 자유로이 넘나들고자 했던 경험이(김동운 2020: 96) 틈새를 통해 들어온 난민을 환대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¹⁰⁾

난민에 대한 환대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주체의 주인의식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로서 또 다른 타자를 만나는 것이다. 주체의 손님 맞이는 주인과 손님이라는 상대적 권력관계를 설정하고 있어서, 손님의 자리와 집 안에서의 규칙을 주인이 정한다. 손님은 주인의 배려에 감동할 수도 있고 섭섭한 감정을 품을 수도 있다. 타자로서 타자를 만나는 환대는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했거나 가질 수 없었던 내부의 배제자 또는 내부적 난민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같은 처지의 난민을 만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본주의 시장 경쟁을 의식하며 경쟁자로 인식할 경우 환대가 아닌 적대를 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체와 타자의 만남, 타자와 타자의 만남 이외에도 주체와 주체의 만남이 가정될 수 있다. 김진혁(2021)에 따르면, 먼저 손님으로 초청 받았다가 환대의 식탁에서 자신을 주인으로 드러냄으로써 관계의 역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초청하여 환대를 베풀었는데, 환대의 식탁에서 나그네는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낸다(창세기 18장 1-19절).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언제부터인가 함께 동행하게 된 길동무를 초청하고 환대를 베풀었는데, 환대의 식탁에서 나그네 길동무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된다(누가복음 24장 13-35절). 초청 당사자였던 성서의 인물들은 초청의 권리를 내려놓고 손님으로 환영받는 경험을 함으로써 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역전되고

10) 이것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이 예멘 난민의 제주 입도 직후 2019년부터 “콤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국가 경계 안에 포섭되면서 동시에 타자화되었던 제주 섬의 역사와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위치를 성찰했던 제주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타자 경험이 배태한 제주의 콤다 문화가 난민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로 제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베푸는 자와 받는자 사이에 내재된 권력 관계가 상대화된다고(김진혁 2021: 102). 주체의 타자화와 타자의 주체화가 발생한 것이다. 주체와 주체의 만남이 가능한 지점이기도 하다.

환대와 권력 사이의 계속된 충돌이 불가피하기에 무조건적 혹은 절대적 환대는 불가능하다(자크 데리다 1997; 김진혁 2021: 102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다는 이방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행위가 타자수용의 원리라고 강조하며, 하버마스는 주인과 이방인 사이의 만남과 긴장 사이에서 이방인을 조건적으로 환대하는 주인의 결단적 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신용식 2022: 130). 난민과의 만남에서, 난민을 비롯한 경계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방인과의 만남에서, 그렇게 국가경계의 틈새를 뚫고 월경의 상상력이 실천되는 현장에서, 난민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난민은 국가를 상실한 국민국가의 법률적 보호에서 배제된, 생존의 뿌리가 뽑힌 채 월경하는 이들이다. 보호의 울타리가 없는 난민들이기에 상대적으로 권력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난민들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난민과의 만남은 적대와 환대라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으로 나타나며, 적대와 환대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난민과의 만남을 적대와 환대라는 대립쌍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제 3의 반응이 존재한다. 무관심이다. 적대와 환대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의 표명이지만, 무관심은 관심의 유예상태이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관심은 유예해 두었던 관심을 표명하고 적대와 환대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3. 무관심, 관심의 유예

유엔난민기구(UNHCR 2021)에 따르면, 난민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2018년 6월과 2020년 11월의 시점을 기준으로 잘모름(입장 없음)이 22%에서 14%로 달라졌다. 예멘 난민의 급작스러운 출현 직후인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난민 수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편은 50%,

찬성하는 편은 29%였다. 잘 모르겠다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없다는 응답은 22%였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이 79%에 달하지만, 즉각적인 관심 표명을 주저한 사람들도 22%나 있었다. 22%는 어느 대통령의 지지율에 버금갈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 22%의 무관심, 관심의 유예는 2년후인 2020년 11월에 14%로 줄었으며, 반대하는 편이 3%p 상승했고 찬성하는 편이 4%p 상승했다. 우리는 이 22% 무관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관심은 종종 현실 속에서 실천을 불가능하게 하는 병적인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손봉호 1988; 유봉인 2000; 김한승 2002; 임현영 2010; 송영훈 2015).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자인 난민에 대한 무관심은 배려될 수가 있다. 물론 무관심이 무관심으로 끝나고 관계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무관심은 배려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관심이 동반되거나 관심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로서 무관심은 포용과정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난민과의 만남 첫 단계에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적대나 환대를 표명하기보다 무관심으로 일정 시간 같은 공간에서 지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¹¹⁾들은 눈에 잘 띄게 마련이다. 다수의 시선은 소수자에게 부담일 수 있다. 시선을 거둔 무관심이 소수자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소수자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개별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차이에 대한 전략적 무관심’(김대균 2011: 196)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관심에 대하여 칸트는 관심의 소멸이 아니라 관심에 대한 일시적인 판단 중지로 이해하였다(양지형 2019: 95). 칸트의 무관심은 무감각이나 무감정이 아니라, 공감에 의해 과잉된 인간 사랑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도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윌글: 99). 무관심은 감정의 동요를 나타내지 않는 일종의 냉정함이다(윌글: 99). 가라타니 고진은 인식적이고 도덕적인 관심을 팔호에 넣

11) 여기에서 소수자는 숫적으로 소수인 집단을 의미한다. 숫적인 소수가 다수보다 눈에 잘 띄인다는 것은 다수의 일반성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시선의 무관심은 사회적 약자(minority)에게도 부담을 줄여주는 배려일 수 있다.

는 무관심이 관심을 괄호에 넣고 차이를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고 말한다(윗글: 100). 훗설의 형상학적 환원(괄호치기, 판단중지)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 것을 유보해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크레이브 1991: 126). 무관심은 관심의 유보이고 유예이다.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입장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에서도 인식조사가 수행된 바 있다. 유엔난민기구의 보고서(2021)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 것인데,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 제주지역은 별도의 표본으로 추출되지 못하고 강원지역과 함께 묶여 있었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에서 2020년 11월에 실시한 제주지역 난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전국조사와 비교하면 <표 1>과 같다(전영준·김준표 2021: 152).

<표 1> 난민 유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

전국 (UNHCR, 2021: 15:33)			제주	
선택지	2018.06	2020.11	선택지	2020.11
잘모름 입장 없음	22	14	잘모름 입장표명어려움	21.8
반대하는 편	50	53	난민법 있어도 반대	25.4
찬성하는 편	29	33	난민법 없어도 찬성	12.8
			난민법 존중 준수	39.6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의 경우 난민법 존중 준수가 39.6%, 잘모름 입장표명 어려움이 21.8%, 난민법 있어도 반대가 25.4%, 난민법 없어도 찬성이 12.8%로 나타났다. 난민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면 될 일이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다는 점에서, 제주도민 다수의 입장은 법률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에 맡겨두면 될 일 아니냐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잘모르므로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응답 2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조사의 2018년 6월 22%, 2020년 11월 14%에 비해 그 비율이 줄어들지 않았다. 법률적 절차에 맡겨두자는 39.6%와 입장 표명

을 하지 않는 21.8%를 합한 61.4%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제주도민이 제주도에 급작스럽게 들어온 예멘 난민에 대하여 사실상 무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제주도민의 무관심이 예멘 난민들에게는 오히려 평화가 아니었을까?

4. 드르쌍 내부러사 콤어지는 콤다의 실천

제주도민의 무관심은 제주 사람들의 배타성으로 비판되기도 한다. 제주 섬 바깥에서 제주지역으로 들어와 살고있는 육지 사람들에게 제주 사람들의 특징을 물어보면 제주 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육지 사람들이 이해한 제주 사람들의 배타성은 제주 사람들의 무관심을 가리킨다. 제주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타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어의 ‘콤다, 드르콤다’와 ‘짜다, 드르짜다’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제주 사람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수 있다.

콤다와 짜다는 반대되는 뜻의 대립어이다. 콤다는 품 안으로 끌어안는 것이고, 짜다는 몸 밖으로 품 밖으로 내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주어 콤다는 품다를 의미하고, 짜다는 내치다, 짜다를 의미한다. 몸 안으로 콤(품은) 것은 몸 밖으로 짜게 마련이다. 그런데 제주 사람들은 품 밖으로 내치면서 품어안는다. 품 밖으로 내치라는 말을 품 안으로 끌어안으라는 말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연유로 제주어 콤다는 제주어 사전에서만 찾아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된 반면에, 짜다는 ‘드르쌍 내볼라’는 말로 일상생활 중에 허다하게 사용된다.

‘드르쌍 내볼라’는 ‘저만큼 내쳐서 내버려 두라’는 의미이다. 신경 쓰지 말고 관심 두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말이다. 대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용례로 사용된다.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분을 삭이지 못하고 식식대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며 관심을 표하는 형제더러 어머니가 ‘거시지 마랑 드르쌍 내불라’고 소리친다. ‘괜히 신경 건드리지 말고 모른 척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세대 차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자식이 하는 일들이 부모 입장에서 영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다. 자식에게 ‘넌 왜 그 모양이냐’며 야단치는 아버지에게도 어머니는 ‘거시지 마랑 드르쌍 내불서’라고 한다. ‘가만히 내버려두고 지켜보면 알아서 잘 할 텐데 왜 야단치고 그러시느냐’는 것이다. ‘드르쌍 내불라’는 말은 ‘괜히 참견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는 의미로 제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제주사람들의 ‘쿰’은 (품는) 방식이고, 제주의 쿰다 문화이다.

제주 사람들은 마을에 새로 들어온 외지인을 드르쌍 내분다. 행여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이것 저것 호구조사를 하며 관심을 표명하려고 다가갈라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거시지 마랑 내불라,’ ‘드르쌍 내불라’고 한다. 괜히 건드리지 말고 가만 두라, 관심 끄고 그냥 두라는 것이다. 무슨 사정으로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괜히 관심이 쏠리는 것을 의식하며 마음 쓰게 하지 말자는 일종의 배려이다. 마을에 들어온 외지인에게 보이는 이 첫 반응은 외지인에 대한 배척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외지인이 새 터전에 자리 잡기까지 기다리는 마음이다. 관심으로 배려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배려하는 방식이 제주의 드르쌍 내불명 쿰는 문화이다. (김준표 2020: 220-221)

드르쌍 내불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안타까움이다.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거뜬히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이다. 마을 사람들은 드르쌍 내불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쿰어사 헐(품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재어본다. 스스로 내쳐진 경험이 있기에, 스스로 홀로 서고서야 권력관계의 균형을 맞추며 동등하게 쿰어지는(품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제주 사람들의 쿰다 문화는 드르쌍 내부는 무관심을 포용의 전제로 삼는다. 내쳐진 경험과 자수성가하여 동등하게 한 품 안에 서게 되는 이야기는 제주의 신화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의 당신본풀이(신화)는 당신(당의 신)이 자리 잡게 된 근본 경위

를 풀어서 말해준다. 그 중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궤네깃당본풀이에는 대등한 신으로 좌정한 부모와 자식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금백주는 바다 건너 강남 천자국에서 바다에 버려졌고 제주에 표착하여 소소소천국을 만나 혼인을 한다. 둘 사이에 태어난 여섯째 아들 궤네깃또는 세 살 때 처음 만난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짓누르며 놀다가 버릇없는 놈이라며 바다에 버려진다. 세월이 흘러 궤네깃또는 강남천자국에서 큰 장수가 되어 백만 군사를 거느리고 제주도로 돌아온다. 천하가 요동하는 소리에 놀란 아버지 소천국과 어머니 백주또가 하녀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하녀는 세 살 적에 죽으라고 무쇠석함에 넣어 바다로 던졌던 여섯째 아들이 아버지를 치기 위해 오면서 내는 소리라고 대답한다. 아버지는 무서워서 아랫 송당 마을로 도망가다가 죽어서 아랫 송당 마을의 당신이 되고, 어머니도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윗 송당 마을로 도망가다가 죽어서 윗 송당 마을의 당신이 된다. 궤네깃또는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 제사를 차리고 흰시루떡으로 어머니 제사를 차린 후에 궤네깃당의 당신이 된다.(궤네깃당 본풀이)¹²⁾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제주의 당신본풀이 품 안에 나란히 자리한 궤네깃또는 “드르쌍 내불어사 콤어지는” (저만큼 내쳐지고 나서야 동등하게 하나가 되는) 제주 콤다 문화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쳐진 타자화의 경험은 신화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주 섬의 역사는 육지 중앙정부의 지방으로 편입되면서 끊임없이 타자화를 경험하였다.¹³⁾

이와 같이 제주 사람들에게서 콤다, 포용의 실천은 무관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대등한 관계로 한 울타리 안에 서는 것에 이르는 것이다. 대등한 관계가 되고 나면 적대와 환대는 의미가 없다. 한 품 안에서 나누는 품앗이 주체들로서 수놓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

12)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문화/역사 제주설화 일반신화 백주또 참조 (<https://www.jeu.go.kr/culture/myth/mythInfo/generalMyth/general08.htm>). 금백조(백주또)의 출생지와 관련하여서는 이현정(2018)에서, 궤네깃또 당신본풀이와 관련하여서는 서순실 심방 본풀이(2015)와 양창보 심방 본풀이(2010)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13) 제주 섬의 타자화 역사는 양정필(2021), 전영준(2021a; 2021b), 김치완(2020; 2021), 김동윤(2020; 2022), 고성만(2022)에서 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도 무관심의 단계를 지나 품앗이 주체로 수놓음에 참여하였다. 제주 섬을 떠나지 못하도록 발이 묶여있던 예멘 난민들도 제주 섬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을 경험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수놓음에 참여할 수 있었다.

무릉공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공소에는 관리책임자인 공소회장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여섯 명이 머물거라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져서 9명이 들어가야 했어요. …… 그런데 일주일도 안됐는데 회장님 전화가 왔어요.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세탁기를 바꾸는데 아직 쓸 만하네요. 세탁기 준다는데 받아도 되겠지요?” “아이고, 그럼 받아, 받아요!”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들 법적으로 일하는 거 허가됐나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일당 주고 일 시키고 싶다는데 일 시켜도 되겠지요?” “무릉지역은 해도 돼요! 단속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거지요. 나중에는 동네 젊은 사람들이랑 아침에 가서 조기축구 하는 거예요. (김상훈 외 2021: 246)

제주 문화에서 수놓음은 육지부의 품앗이를 넘어선 생활 전반에 걸친 노동력 교환을 의미한다. 국가에서는 아직 예멘 난민들의 노동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예멘 난민들에게 먼저 돕(품)을 청하였다. 무관심의 단계, 마을 공소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을 드르쌍 내부는 단계가 지난 후에 필요를 나누고 도움을 청하는 관계가 된 것이다. 돕을 청한다는 말은 일손을 도와달라는 의미이고, 나중에 필요한 일에 일손을 내어주겠다는 의미이다. 현대 사회에 이르면서 돕을 청하고 되갚아야 할 돕을 약속하던 것이 돕을 청하면 품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었어도 돕을 청하는 이가 고용주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놓음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예멘 난민들의 경우에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야 할 상황을 인지하기에 미래에 내가 도와주어야 할 빛인 나의 품, 나의 일손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돕을 청하고 돕을 제공하고 일당을 받는 과정에서 날

품을 제공하게 되는 낯 일꾼은 단순한 피고용자가 아니다. 낯일을 한다는 것은 다음에 낯을 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수놓음 공동체의 구성원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5. 나가는 글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이다. 예멘 난민들뿐만 아니라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콩고DR,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산업연수생, (체류경과) 외국인노동자들까지 우리는 여기 함께 살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윤리는 콤다의 실천으로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적대나 환대 이전에 무관심으로 서로에게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시간이 지나 대등하게 품을 나누는 수놓음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나는 것이 콤다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주체와 타자가 아니라 무관심을 매개로 하는 타자와 타자의 관계를 거쳐 대등한 주체와 주체로 만나는 설정은 다문화사회의 윤리적 실천을 구상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주체와 주체의 만남을 상상할 때 필요한 것은 언어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다문화사회 소통의 출발선에 해당하는 언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놓치고 있다. 이중정체성, 다중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단일민족신화의 잔상을 깨뜨리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처럼(김준표 2020), 다문화사회에서 주체와 주체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이중언어를 상황 맥락에 맞게 달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함윤주 2020: 165) 또한 언어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윗글: 168)함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상호문화주의를 기초로 문화교육과 언어교육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처럼(신용식 2019: 122), 다문화(한국)사회에서 이중언어교육이 상호문화적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할(윗글: 142)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고민을 보충하는 일은 관련 연구자들의 후속연구를

기대하는 선에서 논의를 미루어둘 수밖에 없다.

예멘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두고 한국사회가 보여준 상반된 반응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이 글은 난민에 대한 적대와 환대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관심 표명임을 확인한 후, 한국인의 난민인식 조사와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무관심에 주목하여, 제주 사람들의 콧다 문화가 다문화사회 윤리적 실천의 한 예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적대와 환대, 무관심, 포용에 대한 개념의 역사와 이론을 보다 깊이있게 다루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고성만(2022). 영연방 점령군(BCOF) 사료를 통해 본 제주 사람들의 밀항과 4·3 경험, 〈제주도연구〉 57, 제주학회. 49~70쪽.
- 김대군(2011).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 배려윤리, 〈윤리교육연구〉 24, 한국윤리교육학회. 185~198쪽.
- 김동윤(2020). 정치적 난민과 월경(越境)의 문학: 김시중의 경우, 〈탐라문화〉 6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75~105쪽.
- 김동윤(2022). 제주소설의 4·3 난민 형상화 양상과 그 한계, 〈영주어문〉 50, 영주어문학회. 269~298쪽.
- 김상훈·김영순·이응범·송영심·신강협·모하메드 사이푸·최용찬·김진선·김준표(2021). 『제주인권활동가 이야기 사람과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집옥재.
- 김준표(2020). 다문화 사회의 정체성 트러블과 제주의 콧다 문화, 〈현상과인식〉 44-4,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7~227쪽.
- 김준표(2021a). 경계를 넘는 이동과 함께 산다는 것, 〈다문화콘텐츠연구〉 38,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95~119쪽.
- 김준표(2021b). 여러 전통들과 초월의 재해석: 정재식, 『한국의 종교, 사회, 윤리의 전통』(송재룡/임영빈 옮김, 2020), 〈현상과인식〉 45-4,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3~228쪽.

- 김진선(2020). 한국사회에서의 난민 인식의 문제, <탐라문화> 6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7~37쪽.
- 김진혁(2021). 환대와 선택: 환대의 신학을 위한 예정론의 재해석, <장신논단. 53-1,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95~125쪽.
- 김치완(2020). 난민의 출현과 대응에 대한 철학의 문제들, <탐라문화> 6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39~74쪽.
- 김치완(2021). 제주(濟州)·유구(琉球) 표류 난민의 신분 위장과 경계인 의식, <열린 정신 인문학연구> 21-3,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9~61쪽.
- 김한승(2002). 풍요와 결식,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병, <월간 샘터> 33-2, 샘터사. 40~41쪽.
- 대한성서공회(2004).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서영표(2020). 현대사회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혐오: '난민'이 문제가 되는 사회, <탐라문화> 6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37~174쪽.
- 손봉호(1988). 현실에 무관심한 철학, <철학과현실> 1, 철학문화연구소. 46~66쪽.
- 송영훈(2015). 국제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월간 복지동향> 204,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5~10쪽.
- 신용식(2019). 상호문화적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4,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119~149쪽.
- 신용식(2022). 타문화에 대한 관용인가, 환대인가? -상호문화적 만남의 한계선으로서의 고향세계-,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1,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127~151쪽.
- 양정필(2021). 조선 성종-중종 대 제주도 출륙 포작인 정책과 난민적 성격 고찰, <탐라문화> 6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234쪽.
- 양지형(2019). 칸트의 실천철학에서 조명한 정념과 무관심 -흡스와 루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98, 새한철학회. 77~105쪽.
- 유봉인(2000). '의문사'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물과사상> 31, 인물과사상사. 208~211쪽.
- 유엔난민기구 UNHCR(2021).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 결과보고서』, 한국리서치.
- 이성욱(2018).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여론과 정치적 결정에 대한 단상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원리 위에서, <한국콘텐츠학회지> 18-10, 한국콘텐츠학회. 121~133쪽.
- 이현정(2018). 제주도 구비서사물에 나타난 해상타계의 변주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 36, 한국무속학회. 357~389쪽.
- 임현영(2010).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를 위한 정치학, <역사비평> 91, 역사비평사. 9~19쪽.
- 전영준(2009). 신라사회에 유입된 서역 문물과 다문화적 요소의 검토, <신라사학보>

- 15, 신라사학회. 161~192쪽.
- 전영준(2021a). 10~12세기 고려의 발해난민 수용과 주변국 동화정책, <제주도연구> 55, 제주학회. 27~53쪽.
- 전영준(2021b). 고려시대 삼별초 전쟁난민과 피난처, <동국사학> 72, 동국역사문화연구소. 45~83쪽.
- 전영준·김준표(2021).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 <탐라문화> 6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29~159쪽.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2010). 『양창보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2015).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 크레이브, 이안(1991). 『현대사회이론의 조명 -파슨즈에서 하버마스까지』, 김동일 옮김, 문맥사.
- 함윤주(2020). 다문화교육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이중언어교육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5,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161~184쪽.
- 국가통계포털 KOSIS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vw_cd=MT_ZTITLE&list_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법무부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https://www.moj.go.kr/moj/2417/subview.do>
- 제주특별자치도청,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https://www.jeju.go.kr/culture/myth/mythInfo/generalMyth/general08.htm>
- 통계청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21620
- 통일부 (검색일: 2022년 11월 19일)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필자 소개

성 명 김준표

소 속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탐라문화연구원 [우편번호] 63243

전자우편 cumda.identity@gmail.com

www.kci.go.kr

| Abstract

CUMDA, Embracing Indifference beyond Hostility and Hospitality

Kim, jun-pyo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flect critically on the hostility and hospitality of multicultural Korean society toward Yemeni refugees.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possibility of inclusion in Cumda culture of Jeju island. Cumda culture carries out indifference as a precursor to inclusion. This article appeals for the consideration of indifference beyond hostility and hospitality, and *εποχή*, the suspension of judgment, before the perception of others.

Hostility and hospitality are expressions of immediate and active interest in others. When we meet refugees we face, we usually present hostility or hospitality. However, There is actually a third reaction. Indifference. Hostility and hospitality are expressions of immediate and active concern, but indifference is a moratorium on attention. 22% of Koreans' positions on refugee acceptance were in unable-to-express-position in June 2018(UHCR, 2020). And 61.4% of Jeju islanders did not select the pros and cons(Jeon & Kim, 2021). This means moratorium on interest, that is indifference.

Jeju people would seem not to pay much attention to the new strangers. This originated from Jeju's CUMDA culture which has been said 'Dru-ssang Nae-bula'. It has been believed in Jeju to get to be a community by standing alone in indifference.

|Key words| cumda, refugee, multicultural, hostility, hospitality, indifference

투고일 2022. 10. 31 / 심사일 2022. 11. 2 / 심사완료일 2022. 11. 16

